영화 '파과' 베를린 사로잡은 60대 여성 킬러

"이혜영 배우를 보자마자 운명적이라고 느꼈어요. 살아온 흔적과 에너지, 아우라가 전해졌죠. 마치 오랫동안 '파과'를 준비한 느낌이었습니다."

영화 '파과'를 연출한 민규동 감독은 27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주연 배우 이혜영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영화 속 캐릭터) '조각'을 구현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오는 5월 1일 개봉하는 이 영화는 전설적인 60대 여자 킬러 조각(이혜영 분)과 젊은 남자 킬러 투우(김성철)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구병모 작가가 쓴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했다.

소설의 팬층이 탄탄한 데다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나이 든 여성 킬러가 등장해 제작 단계 때부터 캐스팅에 관심이 쏠렸다. 영화 팬들의 '가상 캐스팅'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히던 이혜영이 실제로 조각 역을 맡아 화제가 됐다.

이혜영은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좋은 배우들이 많은데 왜 나를 선택했을까 생각해 봤다"며 "아마 보톡스를 맞지 않아 (자연스럽게 늙은 덕에) 캐스팅된 게 아닌가 싶다"고 웃었다.

살인 청부업체 '신성방역'의 떠오르는 에이스이자 조각을 쫓는 미스터리한 킬러 투우 역에는 김성철이 낙점됐다.



영화 '파과' 포스터.


27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파과' 제작보고회. 연합뉴스

이혜영·김성철 주연… 오는 5월 1일 개봉 예정
"단순한 액션을 넘어 노화·인생 관한 성찰 담아"

민 감독은 김성철에 대해 "뮤지컬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퍼포먼스, 에너지가 대단하다"며 "투우는 지나치게 남성적인 인물이 아닌데, 김성철은 아직 미소년 같은 느낌이 있어 역할에 맞았다"고 설명했다.

평소 액션물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김성철은 민 감독이 건넨 시나리오를 읽고 큰 고민 없이 출연을 확정했다. 그러나 액션이 거칠고 롱테이크(긴 분량의 장면을 편집 없이 한 번에 촬영하는 것)도 많아 촬영 현장에서 애를 먹었다고 회상했다.

김성철은 "투우의 첫 등장 장면은 다섯 번 정도 찍으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감독님이 '오케이'(OK)를 안 해주시더라"며 "결국 총 17번 같은 장면을 촬영했다"고 돌아봤다.

액션 연기에 도전하는 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혜영은 촬영 중 다치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무술 감독님과 스턴트 배우가 없었으면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없었다. 편집도 너무 잘됐다"고 말했다.

실감 나는 액션 덕에 '파과'는 지난달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부문에서 상영된 이후 해외 매체로부터 "총 대신 칼을 든 존 윅을 상상하면 된다" 등 호평을 끌어냈다.

민 감독은 "노화와 인생에 관한 성찰이 담겨 있다"는 한 외신 평을 소개하며 '파과'가 단순히 액션에 치중한 영화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과'에선 인물들이 몸도 싸우지만, 마음도 싸운다. 몸과 마음이 싸우는 게 진짜 싸움이라 생각한다"며 "그 결과 관객은 인간의 삶을 보게 되고 감정적 여운도 길게 느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이병헌 주연 '승부' 개봉 첫날 1위 안착

봉준호 감독 '미키17' 2위로

이병헌·유아인 주연의 영화 '승부'가 개봉일 9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

2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승부'는 개봉일인 전날 9만1000여 명(매출액 점유율 52.8%)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했다.

김형주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바둑의 황제라 불리던 프로 9단 조훈현(이병헌 분)과 그의 제자 이창호(유아인)가 1990년대 결승전에서 연이어 맞붙게 되며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2021년 촬영을 마치고 2023년 넷플릭스로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으면서 4년 만에 개봉했다. '승부'는 유아인이 마약 논란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극장용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실제 관람객의 평가를 토대로 산정하는 CGV골든에그지수에서 96%의 높은 점수를 기록 중이다. 두 주연 배우의 뛰어난 연기가 호평받는 분위기지만, 일부 관객은 유아인을 스크린에서 보는 게 불편하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승부'의 개봉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틀을 제외하고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던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은 2위로 내려갔다. 1만7000여 명(9.8%)을 더해 누적 관객은 288만여 명으로 늘었다.

3위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으로 1만5000여 명(9.7%)이 관람했다. 연합뉴스


영화 '승부' 한 장면.

에스파, 히트곡 'Whiplash' 영어판 발매

29일 빌보드 시상식서 첫 선


걸그룹 '에스파'

걸그룹 에스파가 히트곡 '위플래시'(Whiplash)에 영어 가사를 붙여 새로운 매력을 뽐낸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파의 '위플래시' 영어판을 27일 오후 1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동명 미니앨범 타이틀곡으로 발매된 '위플래시' 원곡은 강렬한 베이스 음향과 하우스 장르의 비트가 특징인 댄스곡이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틀에 갇히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는 가사가 인기를 끌며 원곡이 수록된 미니앨범은 지난해 11월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다.

이번 싱글에는 '위플래시' 원곡에 영어 가사를 붙인 버전과 함께 세계적인 DJ 스티브 아오키가 리믹스한 버전도 수록됐다. 아오키는 에스파 멤버들의 개성 넘치는 보컬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에스파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빌보드 위민 인 뮤직 2025'(Billboard Women in Music 2025) 시상식에 참석해 '위플래시' 영어 버전 무대를 처음 선보인다.

에스파는 해당 시상식 '올해의 그룹상'(Group of the Year)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KBS '한국인의 밥상' '아침마당' 캡처

'한국인의 밥상' 최불암, 14년 만에 하차

새 MC에 배우 최수종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한 끼 밥상 위에서 풀어낸 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 MC가 14년 만에 최불암에서 최수종으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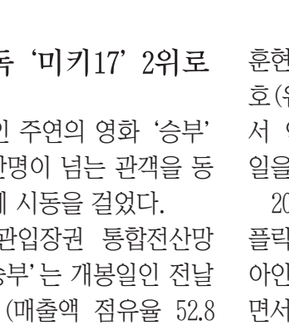
KBS는 1TV '한국인의 밥상' 700회를 맞는 다음 달 10일부터 최수종이 새롭게 MC를 맡는다고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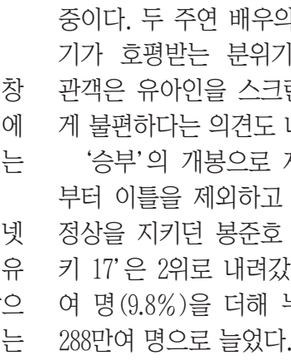
약 14년간 '한국인의 밥상'을 이끌어 온 최불암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밥상 이야기를 이제 든든한 후배에게 물려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불암은 '한국인의 밥상'이 첫 방송된 2011년 1월부터 MC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도 올해 1월 프로그램에 다시 돌아왔다.

그는 올 초 복귀와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는 마음으로 힘차게 가자"고 말했지만, 결국 '한국인의 밥상'을 후배에게 물려주게 됐다.

KBS 관계자는 "(최불암의) 건강상 문제는 아니다"라며 "박수칠 때 떠나고 싶다는 배우 측의 제안이 있어 후임자를 고심한 끝에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취 축 임
JSF 제주특별자치도 스쿼시연맹
회 장

박 재 구
(제주노블로타리클럽 회원)
제주특별자치도 스쿼시연맹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otary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노블 로타리클럽
회 장 고 승 우 외 회원 일동

취 축 득
공학박사

김 지 혁
(대기고등학교 졸업)
부 : 김군학 · 모 : 이영숙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인공지능 전공) 학위
취득과 LG AI 연구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 학 유 지 회

취 축 임
참조은새마을금고 이사장

유 철 수
참조은새마을금고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제주생명의숲
공동대표 고 창 문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 가
大勢 대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GD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28 · 구독 750-2315 · 서귀지사 732-5552